

임실군 민선 6기 성공적 마무리

60개 공약사업 점검 결과 9건 마무리·45건 정상 추진 중... 90% 이행

민선 6기가 석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임실군이 민선 6기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해 올인하고 있다.

군민과의 약속인 공약사업을 집중 점검하는 한편 핵심사업들이 상반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발로 뛰는 특단의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10일 임실군은 심 민 군수의 주재로 확대간부회의를 갖고 4개 분야 60개 사업의 민선 6기 공약사업의 실질적인 결산과 문제점을 점검·평가하고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집중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군에 따르면 현재 60개 공약사업을 점검한 결과 9건은 마무리했으며, 45건은 정상 추진 중으로 90%의 높은 이행율을 보였다.



민선 6기가 석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임실군이 민선 6기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해 올인하고 있다.

장애인 우대버스 운영과 임실의료원 및 보건지소 물리치료실 확충, 노부모 모시는 가정지원 등도 성공적으로 진행 중이다.

특히 민선 6기의 최대 성과로 꼽히는 옥정호 수변관광도로 관광도로 개설과 관련해 지난 해 타당성 용역비 2억원을 확보해 반세기 숙원사업의 물꼬를 텄다.

여기에 성수산 자연휴양림 매입을 통한 생태관광지 조성, 옥정호 종합관광개발특구 조성, 임실치즈테마파크 장미원 조성을 비롯해 노인복지관 및 다목적 체육관, 공공도서관 건립, 임실천변 경관개선사업 등도 핵심사업으로 착착 진행 중이다.

군은 이번 확대간부회의에서 116개

의 올해 핵심사업에 대해 사업추진 성과의 조기 가시화를 위해 현재 추진상황, 향후계획, 예산집행상황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올해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동절기 공사 중지 해제 및 각종 행정절차 이행을 따라 4월부터 현장행정 위주의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심 민 군수는 공약사업의 경우 직원 여러분의 노력에 힘입어 대부분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다소 부진한 공약에 대해서는 군민과의 약속인 만큼, 6월말까지 최선의 대안을 찾아 민선 6기 군민들의 신뢰 속에서 마무리 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군,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가동

334억 국비확보

순창군이 적성·유등·풍산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국가예산 공모에 나서면서 11개 읍면 전체 기초생활거점을 완료하는 최초의 자치단체가 될지에 대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10일 군에 따르면 기초생활 거점 육성사업은 열악한 농촌 기초생활 기반과 지역경관 개선, 주민 역량강화를 도모해 살기좋은 농촌을 만드는 사업이다.

군은 지난 2012년 순창읍을 시작으로 북홍, 쌍치, 구림, 금과, 동계, 팔덕, 인계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국가예산을 확보했다.

확보한 국비만 334억에 이르고 총사

업비는 470억 정도가 투자되고 있다. 순창읍과 북홍면은 사업을 완료 했으며 나머지 6개면은 사업이 진행 중이다. 순창읍 일품공원과 각 면 지역에 체육관과 커뮤니티센터 등 이 만들어 지는 등 기초생활 환경이 달라지게 달라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군은 올해 적성면과 유등면 풍산면 기초생활 거점육성 사업 선정에 사활을 걸고 있다.

3개면 국가예산이 확보되면 순창 전 지역에 대한 생활거점 개선사업이 완료 되면서 전 군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3개면 각 면마다 40억 규모로 총 120억 규모다.

사업이 선정되면 내년부터 적성면에는 문화프라센터 설치와 공용화장실과 버스승강장 정비는 물론 경관개선

사업과 적성문화 아카데미, 찾아가는 문화누림배달사업 등 다양한지역역량 강화 사업이 추진될 계획이다. 유등면은 복지회관 리모델링, 공동커뮤니티 공간, 실버 건강 카페 등을 만들고 도로환경 개선사업과 자전거 쉼터 센터 등이 들어선다.

섬진강 자전거길 주변의 경관도 개선할 계획이다. 풍산면은 산울림센터 및 광장, 풍산 메이리길 조성과 지역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기초 생활거점 육성사업은 다양한 실제 군민들이 거주하는 면 중심지의 생활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공모사업에 꼭 선정될 수 있도록 밀도 있는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쿠킹클래스' 수강생 모집

순창군, 남성 대상... 24일부터 5월 10일까지

순창군이 지역에 거주하는 남성들을 대상으로 한 요리교실 '쿠킹클래스' 수강생 모집에 나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0일 군에 따르면 '쿠킹클래스'는 남성들이 요리와 친근해지는 계기를 만들어 혼자서도 건강한 식생활이 가능하고 영양상태 개선은 물론 가정에서도 새로운 남편상과 자상한 할아버지로서 위상도 정립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마련한 교육이다.

특히 농촌지역 특성과 고령화로 혼자 살면서 식사를 해결하지 못하는 남성층이 늘어나고 있는 지역의 추세를 감안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쿠킹클래스 교육은 오는 24일부터 5월 10일까지 화요일과 목요일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2시간동안 총 6회 건강장수연구소 요리실습실에서 30여명 규모로 진행된다.

재료비 6만원의 자부담 외에는 별도 추가비용은 없다. 강의는 전 남파대학 한도연 교수 지도하에 진행된다.

1회에는 아내를 위한 음식 만들기, 2회엔 자녀를 위한 간식 만들기, 3회엔 간편한 밑반찬 만들기, 4회엔 손님 초대 음식 만들기, 5회엔 실생활에 활용 음식만들기, 6회엔 순창고추장을 이용한 요리 만들기 등 다양한 주제에 맞춰 건강한 요리를 배울 수 있다.

교육생 모집은 4월까지이며 순창에 거주하는 남성이라면 누구나 신청가능하다. 건강장수연구소 전화(063-650-1527)으로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제는 남성들도 요리를 배워 자상한 남편과 아빠로서 위상을 새롭게 할 때인 것 같다"면서 "지역에 사는 많은 남성분들이 교육에 참여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지역 매아리

순창군, 녹스 버너 설치 지원사업

순창군은 4월부터 대기환경개선 및 사업자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저녹스 버너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저녹스 버너란 산소, 온도, 시간 등을 조절하여 연소효율을 증대시켜 연료비를 절감하고 질소산화물(NOx)의 발생량을 저감하는 고성능 버너로 미세먼지 발생저감을 통해 깨끗한 대기환경을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지원사업은 중소기업, 비영리법인·단체, 업무·상업용 건축물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된 일반 보일러, 냉온수기 및 건조시설의 기존 일반 버너를 저녹스버너로 교체하는 경우로 한국환경공단인 인정 검사에서 적합한 것으로 판정받은 저녹스버너를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을 하고 있으며, 지원 항목으로는 저녹스버너 및 부대 설비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임실군지회장이 노인 게이트볼 대회

대한노인회 임실군지회(지회장 이강년)가 주관하고 임실군이 후원하는 '제15회 대한노인회 임실군지회장이 노인 게이트볼 대회'가 10일 섬진강 생활체육공원에서 성대하게 열렸다.

이번 대회는 각 읍면 24개팀에 2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으며, 심 민 군수와 문영두 군의회의장, 유관기관 단체장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경기는 각 읍면 분회에서 선발된 대표 선수로 남자2팀, 혼성12팀이 참가하여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겨뤘다.

경기의 공정한 심판과 진행을 위해서 국민생활체육 전라북도게이트볼연합회 심판원 18명이 경기를 진행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군 블로그 기자단 발대식

순창군 홍보를 책임질 제3기 순창군 블로그 기자단이 발대식을 갖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10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발대식은 기자단 및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블로그 기자 위촉장 수여, 인사 말씀, 교육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에 선정된 제3기 블로그 기자단은 지난 2월 공개모집을 통해 블로그 및 개인 SNS를 운영하는 직장인, 문화관광해설사, 주부 등 7명을 선발해 구성했으며 올해 12월말까지 군의 각종행사와 축제를 비롯해 관광광명 등 전반적인 군정소식을 블로그에 게시하며 활동하게 된다.

군은 이번 발대식을 통해 블로그 운영 기본방향 제시, 기사작성 및 취재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 노암산업단지 3지구 투자협약 체결

남원시는 10일 노암산업단지 3지구에 투자를 결정한 더조은주식회사(평택소재)와 강북대 남원부시장, 김희철 기업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투자협약을 체결한 더조은주식회사는 황사마스크를 생산하는 기업으로 최근 마스크 급속한 수요 증가에 따라 추가 투자를 고심한 끝에 남원노암산업단지 3지구에 제2공장을 부지 3,354㎡ 규모로 13억원의 투자를 결정했다.

이번 제2공장이 준공 후 본격적인 공장가동에 들어가면 25명 인력 창출과 더불어 지역생산 자재 우선 사용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북대 남원부시장은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남원시에 투자를 결정해 준 더조은주식회사 김희철 대표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노암산업단지에 투자에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원활하게 기업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남원시 노암동 일원에 2015년 12월에 준공된 20만3,141㎡ 규모의 노암산업단지 3지구 산업시설 용지 총 24필지 중 11필지에 기업이 입주해 있다.

/남원=유영철 기자



전주매일 교통캠페인

과속,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